

해외연구동향

吕旭龙 | '성별평등'에 대한 요구, 왜곡 그리고 재인식

- 덩링(丁玲)의 작품으로 본 여성주의와 마르크스주의
사이의 갈등과 융합

(번역 : 이국봉)

‘성별평등’에 대한 요구, 왜곡 그리고 재인식

-딩링(丁玲)의 작품으로 본 여성주의와 마르크스주의 사이의 갈등과 융합-

吕旭龙 *

번역: 이국봉 **

〈차례〉

1. 들어가며: 덩링(丁玲)의 곤혹
2. 요구: 덩링의 곤혹(困惑)이 불러온 ‘성별압박’의 풍파
3. 왜곡: 여성주의와 마르크스주의의 충돌과 선택
4. 성별 소외: 하나의 초월적 시각
5. 인식론 재건과 여성해방

〈국문초록〉

딩링(丁玲)은 『삼팔절유감(“三八節”有感)』에서 여성해방과 ‘성별평등(性別平等)’이라는 문제에 대한 깊은 곤혹을 드러낸다: 계급해방으로 남녀가 평등해졌다고 하는데, 왜 사회에는 성별압박의 현상이 아직까지 존재하는가? 일생을 통해서, 그녀는 해답을 찾지 못했다. 시대적 요인 이외에, 전통적인 마르크스주의의 입장과 해석은 상당한 시간동안 덩링은 물론 당시 작가들의 시야를 곤경에 빠뜨렸다. Alison M. Jaggar는 마르크스주의를 계승한다는 전제하에, 초월적인 새로운 시각을 제시한다: 그것은 전통적인 ‘계급(階級)’이나 ‘압박(壓迫)’과 같은 개념이 아닌, ‘소외(異化)’의 개념으로부터 여성해방 명제를 이해하고 분석하는 일이다. 본문은 Alison M. Jaggar가 제시한 정감(情感)에는

* 吕旭龙(1973~), 남, 상해교통대학 정치대학원 전임교원, 문학석사, 철학박사

** 상해교통대학 정치대학원 전임교원

인지(認知)적 가치가 있다는 관점을 활용하여, 덩링의 작품들을 재해석하고, 나아가 사회주의여성주의(社會主義女性主義)의 성별평등에 대한 재인식 및 그 긍정적인 영향에 대해서도 논술한다.

핵심어: 성별평등; 성별소외; 여성주의; 덩링의 작품

1. 들어가며: 덩링(丁玲¹⁾)의 곤혹

왜 전통의 여성들은 남성과의 관계에서 종속적인 지위에 머물러 있는가? 왜 현대 여성은 평등의 대가로 ‘성별소외(性別異化)’라는 대가를 치러야만 하는가? 자유주의여성주의(自由主義女性主義)의 곤경은 어디에 있는가? 여성들이 해방을 하는 데에 있어서 사상적인 무기로서 마르크스주의는 어떠한 이론적 근거와 가치를 제공할 수 있는가? 이러한 물음과 문제제기가 곧 덩링(丁玲)의 곤혹이며, 또한 중국의 여성들이 현대화의 길을 걷는 과정에서 부딪힌 곤혹이라고 할 수 있다. 우리는 중국문학사의 한 단락을 돌아보며, 동시에 당대 사회주의여성주의자 Alison M. Jaggar의 ‘성별소외(性別異化)’ 이론을 활용해서 덩링과 그녀의 작품들을 새롭게 해석해보고자 한다. 이러한 시도가 오늘날 중국사회에서 여성주의와 마르크스주의 간에 공존하는 갈등을 극복하고, 발전적으로 융합하여 나아가는 데에 기여할 수 있기를 희망한다.

1) 丁玲(1904년 10월 12일~1986년 3월 4일), 본명은 蔣偉, 자는 冰之, 호남성 임례(湖南臨澧) 사람. 중국 당대 저명작가, 사회 활동가, 여성주의의 대표인물. 주요 업적: 1951년 스탈린문학상 2등상 수상. 대표 작품: 『소피여사 일기(莎菲女士日記)』, 『태양은 쌍간허를 비추고(太陽照在桑干河上)』, 『내가 시아촌에 있을 때(我在霞村的時侯)』, 『병원에서(在醫院中)』 등등.

2. 요구: 덩링의 곤혹(困惑)이 불러온 ‘성별압박’의 풍파

1942년 3월 『삼팔절 유감(“三八節”有感)』을 막 탈고했을 때만 해도, 2000여 글자 조금 넘는 이 단편의 글이 자기 인생 후반부의 문학과 정치 생애를 송두리째 바꿔놓을 수 있으리라고 덩링은 전혀 생각하지 못했다. 뿐만 아니라, 문예 정풍운동(整風運動)이 이 작은 단편의 문장으로부터 계기가 되고, 옌안(延安)의 전 지역으로까지 그 영향이 파급되는 것은 물론, 그 후 수십 년 동안 지속된 신중국의 문예계에까지 반향을 일으킬 것이라고는 상상할 수조차 없는 일이었다.

덩링의 본의(本意)에 입각해서 말하자면, 『삼팔절 유감(“三八節”有感)』은 여성해방과 ‘성별평등’의 문제에 대해 본인이 직접 체험한 새로운 경험과 느낌 그리고 곤혹(困惑)을 담담하고, 솔직한 마음으로 표현한 것에 불과하다. 덩링은 바로 이 문제에 있어서 평생을 매달린 탐구자이다.

1920년대, 덩링은 자유주의(自由主義)의 영향을 받고, 여성의식에 집중하기 시작한다. 여성의 신체와 정감(情感)상의 느낌과 여성의 처지를 표현하는 데에 힘쓴다. 덩링의 처녀작 『멍커(夢珂)』는 농촌에서 도시로 올라온 소녀가 남성의 소유물로 전락하는 것을 원하지 않고, 본인이 자기 운명의 주인공이 되기를 희망한다. 하지만, 떠돌이생활을 하는 과정에서 그녀는 점차 성적(性的)인 상품으로 팔리고 만다. 덩링은 이 인물을 통해서, 도시생활에 들어선 여성의 운명과 그들의 처지에 대한 근심을 상징적으로 보여준다. 반봉건(反封建)으로부터 여성들이 자유를 갈망하여 선택한 도시생활로의 편입은 단지 순수한 의미에서 해방의 과정이 아니라, 봉건시대의 노예가 자본주의시대의 ‘성별노예’의 길로 접어드는 과정임을 지적한다.

1927년, 여성주의자 덩링은 자신의 대표적인 작품으로 꼽히는 『소피여사 일기(莎菲女士日記)』가 문학계에 센세이션을 일으키고, 마오둔(茅盾)으로부터 “소피여사는 시대고민을 짊어진 청년여성 반역의 절규자”라는 평가를 받는다. ‘소피’는 대담하게도 자신의 성애(性愛)적 욕구를 드러내

고, 전통적인 부권제(父權制)에 상존하던 도덕문화에 대해 놀라울 정도의 도전을 보여준다. “여성의 감성적 욕망은 정신과 깊이 공감해야 한다는 대담한 요구는 성애(性愛) 의식의 관점에서 설명하면 덩링의 붓 끝에 이르러서야 현대 여성은 진정으로 성장, 성숙하고 완성된 여인이 된다.”²⁾

1930년대 초, 덩링은 작가는 단지 글에 의존해서 여성에 대해 말할 수 있을 뿐 진정으로 현실적 의미에서 여성의 사회적 지위를 바꿀 수 없다는 사실을 인식한다. 상품사회에서 여성의식은 소비되지 않고, 곡해되기 일쑤며 오히려 무시된다. 따라서 덩링은 상해의 한 출판 잡지사가 ‘여작가(女作家)’라는 전문호칭으로 덩링과 원고를 계약하고자 접촉했을 때, 그녀는 단연코 거절하며 말한다: “나는 원고는 팔지만, ‘女’자를 팔지는 않습니다.”³⁾

이처럼 덩링은 자유주의에 대한 실망으로 망막해 하던 가운데, 얼친 데 덮친 격으로 사랑하는 남편 후예핀(胡也頻) 또한 참살이라는 비통한 일을 경험한다. 덩링은 이제 좌(左)로 전향하여 마르크스주의를 선택하고, 마르크스주의를 주목하기 시작한다. 덩링은 적극적으로 좌익 문학의 창작에 열을 올리면서, 그녀는 현실 속에서 정확하면서도 실행으로 옮길 수 있는 길을 찾은 것처럼 보였다: 부권(父權)의 문화가 뿌리 깊고, 자본주의 경제가 아주 더디게 발전하던 당시 중국사회에서는 오직 개혁을 통해서만이 사회구조를 바꿀 수 있다. 또한 사회 공공영역에서의 여성의 지위를 변화시켜야만 비로소 더욱 좋고, 빠르게 여성의 독립과 남녀평등을 실현할 수 있다. 1940년, 덩링은 단편소설 『시아촌(霞村)』을 쓴다. 주인공 정정(貞貞)의 몸은 일본인에 의해 강간당하고, 고향에서 그녀의 존엄은 유린당한다. 정정의 몸과 정신은 감당하기 힘들 정도의 상처와 치욕을 받는다. 최후에 그녀는 가족들의 호의와 옛 연인의 연민을 모두 뿌리치고, “집을 등지고, 고향을 등지고” 연안(延安)으로 떠난다. 그곳에 가서 아픈 몸과 마음의 병을 치유하고, 공부도 해서 ‘새로운 사람’이 되자고 다짐한다.

2) 李玲, 青春女性的獨特情懷, 文學評論[J], 1998年 第1期, p.60.

3) 丁玲, 寫給女青年作者[J], 丁玲論創作[C], 上海文藝出版社, 1985年版, p.426.

이러한 방식으로의 출구(出口) 모색은 덩링이 당시의 여성해방문제를 풀어내는 하나의 답이었음을 보여주며, 그것은 또한 새로운 정권에 대한 기대를 반영하기도 한다. 물론, 덩링의 마음속에 회의와 근심이 없었던 것은 아니다. 그녀는 문장 중에, 옌안(延安) 또한 정정(貞貞)을 깊은 고통으로 이끌고 마는 남권(男權)의식의 뿌리를 없앨 수는 없다는 사실을 암시한다. 그녀는 반드시 자신의 경험을 은폐해야만 한다. 시아촌(霞村)을 떠나면서 정정은 말한다: “민감한 부분의 일들조차도 어찌 사람들 모두가 다 알고 있을 수 있다는 말인가?”

『삼팔절 유감(“三八節”有感)』은 덩링이 옌안(延安)에서 4년의 생활을 지낸 이후에 쓴 작품으로, 『시아촌(霞村)』에서 고민한 문제의식의 연장선상에 있다고 보아도 무방하다. 여성해방운동의 선두주자로서, 덩링은 『삼팔절 유감(“三八節”有感)』에서 옌안(延安)에 대한 자신의 감회를 토로한다: “옌안(延安)의 부녀들은 중국의 다른 지방의 부녀들보다 행복하다……그러나 그러한 옌안의 여동지(女同志)들조차도 아직은 그러한 운명을 면할 수 없었다: “장소를 불문하고 어떤 곳이든 간에, 그녀들은 가장 흥미 있는 이야기의 소재로 등장한다. 또한 각양각색의 여동지들 모두는 그에 상응하는 비난과 질책을 듣는다. 이러한 비난과 질책은 모두 엄중하면서도 또한 적절한 것으로 사람들에게 간주된다.” 덩링의 입장에서 보면, 사상적으로 가장 개방됐고, 진보했다는 옌안(延安)에서조차도 ‘남녀평등’의 실현이라는 이상은 아직 갈 길이 멀어보였으며, 옌안(延安)의 여성들조차도 결혼을 했든, 하지 않았든 또는 이혼을 했든 모두가 사람들에게 왈가왈부의 대상이었다.

『삼팔절 유감(“三八節”有感)』 문장의 후반부에서, 사회는 여성에게 더 많은 이해와 관용을 베풀어야 한다고 덩링은 호소한다: “나 자신은 여자로서, 다른 사람에 비해 여성의 결점을 잘 알고 있다. 하지만, 나는 오히려 그보다 여성의 고통을 더 잘 안다고 할 수 있다. 여자들은 결코 시대를 초월할 수 없으며, 이상적일 수만도 없는, 그녀들은 강철로 담금질 된 쇳덩어리가 아니다. 그들은 사회의 유희와 소리 없는 압박에 저항하지 못

한다. 그들 모두는 가슴 깊은 곳에 피맺힌 눈물의 역사를 가지고 있으며……이는 옌안(延安)으로 온 여동지들로 말하면 더욱 그러하다. 이 때문에 여성 범죄자로 전락하고 만 일체의 사람들을 나는 큰 관용으로 바라본다.”⁴⁾

이후, 전혀 예상하지 못한 일이 벌어진다. “바람은 칼날의 끝에서 일어난다”는 사실 말이다. 『삼팔절 유감(“三八節”有感)』은 1942년 옌안(延安)에 분노를 불러왔다. 덩링 개인의 처절한 문제의식과 심리적인 곤혹(困惑)은 시대의 폭풍과 비상사태에 접화했다.

1979년 2월 『신문학 사료(新文學史料)』에는 『저우양 역사의 공과를 논하다(周揚笑談歷史功過)』의 글을 실는다. 이 글에서 저우양(周揚)은 회상하며 말한다: “당시 옌안에는 두 계열의 문학파가 있었는데……우리 ‘루이(魯藝)’파는 비록 공농병(工農兵)의 계층이 결합하여 하나의 덩어리가 될 수는 없지만, 그래도 밝은 광명의 내일을 기대하고, 찬미한다. 그러나 ‘원강(文抗)’파는 사회의 어두운 곳을 끄집어내어 폭로하고……이런 상황에서 왕스웨이(王實味)의 『야백합화(野百合花)』, 덩링의 『삼팔절 유감(“三八節”有感)』이 등장한다. 그들은 공개적으로 발표한 글에서, 당시의 사회정세에 대한 불만을 표시한다. 특히 덩링은, 그 당시 『해방일보(解放日報)』 문예판(文藝版)의 주편(主編)으로, 자신의 글을 우선 발표한다. 이런 정황은 모택동 주석뿐만 아니라, 많은 원로 당 간부들의 이목을 끌기에 충분했다. 그들은 전방에서 돌아와서 말하길, 어찌 옌안(延安)이 이리 난장판이 되었는지…….”⁵⁾ 다른 사료에도 이와 관련한 기록이 있다: 옌안(延安) 문예좌담회 기간 기념사진촬영을 할 때에, 모택동은 묻는다: “덩링은 어디에 있나? 사진 찍는데 좀 가까이 와서 찍으라고 해, 안 그러면 내년에 다시 『삼팔절 유감(“三八節”有感)』을 쓸테니.”⁶⁾ 옌안 문

4) 丁玲, 三八節有感J, 鶴元宝, 孫洁 編, 三八節有感—關於丁玲[C], 北京廣播學院出版社, 2000年版, p.5.

5) 張永泉, 個性主義的悲劇[M], 中國社會科學出版社, 2005年版, p.261.

6) 朱鴻召, 丁玲到延安后的思想波瀾, 炎黃春秋[J], 1999年 7期, p.26.

예외담회가 끝나고 사진촬영 할 때, 모택동은 덩링을 힐난하며 말한다: “여동지 중앙으로 와서 앉으세요, ‘삼팔(三八)’ 절에 욱하지 말고.”⁷⁾

덩링은 자신의 사고(思考)를 스스로 표현한 것에 대해 참담한 대가를 치러야만 했다. 옌안정풍(延安整風) 이후, 덩링은 스스로 “뒤를 돌아보니 해안 절벽에 서 있는 느낌이랄까……일종의 불현듯 깨달으면서도, 문득 두려운 느낌이다”, 이때부터 그녀는 오래도록 역점을 두고 추구해온 여성해방과 ‘성별평등’에 대한 문제의식과는 작별을 고한다. 개성 있는 한 명의 작가로서 ‘성별의식’의 눈으로 일상생활과 혁명에 대한 글을 쓰는 것이 아니라, ‘黨’성이 있는 문예 직업인으로서의 활동에 만족하려고 노력한다.

옌안정풍(延安整風) 운동이후 벌어진 덩링의 이 같은 전향은, 그녀 혼자만의 선택이 아니라, 당시 여성작가 그룹의 집단적인 현상으로 나타난다. 예를 들어 덩링의 『태양은 쌍견허를 비추고(太陽照在桑干河上)』, 루즈취엔(茹志鵬)의 『높고 높은 백양수(高高的白楊樹)』, 『심원(心願)』, 웨이쥘이(韋君宜)의 『아이의 심사(阿姨的心事)』 및 양모(楊沫)의 『청춘의 노래(青春之歌)』 등등, 이 작품들은 말로는 혁명을 외치지만 여성에 관한 것은 아니었다. 이제 여성작가들은 여성(女性)으로서의 자신의 시각을 의도적으로 감춘다.

3. 왜곡: 여성주의와 마르크스주의의 충돌과 선택

덩링이 사상전향을 하던 시기, 당시의 언어 환경은 여성주의와 마르크스주의 사이에 일종의 적대적인 장력을 형성한다. 여성주의냐, 아니면 마르크스주의인가 이 둘 가운데 오직 하나를 선택해야할 것만 같은 분위기가 조성되었다.

7) 袁良駿, 丁玲: 不解的恩怨和謎團, 粵海風[J], 2001年 3期, p.15.

미국학자 페이메이(費梅)에 의하면, 『시아촌(霞村)』의 정정(貞貞)처럼 덩링과 다른 여작가들이 옌안(延安)으로 왔을 때, 그들은 그만 투철한 여성 의식을 포기하고, 무성별(無性別)의 혹은 남성의 향(男人味兒)을 풍기는 사람이 되었다. 여작가들은 40년대 이후 자기 자신을 부정하지 않을 수 없었다. “이것이 또한 덩링을 서양의 다른 여성주의자와 같다고 말할 수 없는 중요한 이유이다. 새로운 사회를 창조하기 위하여, 사회주의가 요구하는 위대한 권리로써 ‘국가’, ‘성별’, ‘민족’과 같은 함의는 모두 사회주의가 제어한다. 마르크스의 대중화는 어떠한 다른 의견을 용납하지 않는다.”⁸⁾

페이메이(費梅)의 관점에 편파성이 없는 것은 아니다. 사실상, 덩링은 결코 “정정과 같지 않다.” 덩링을 대표로 하는 지식여성들은 옌안(延安) 시기에 ‘자아 반성과 개조’를 한다. 전적으로 외부의 압력으로 인한 것이 아니라, 자기 자신이 스스로 인정하고 성찰한 데에서 나왔다는 점이 중요하다. 옌안(延安) 문예좌담회에서, 덩링은 이렇게 반성한다: “나의 글에서 주요하게 틀린 부분은 입장과 사상적인 방법이다……나는 단지 소수의 입장에서만 말을 했을 뿐 전체 당의 입장에 대해서는 고려하여 말을 하지 않았다……나는 단지 몇 가지 중요하지 않은 결점들을 확대해서 말했고, 또한 표면에 비춰진 현상적인 문제만을 보았다; 나는 단지 흠이 되는 점들만 제시했지, 긍정적인 부분과 앞으로 어떻게 개선해야 하는가와 관련된 전망은 잊고 있었다……”⁹⁾ 이 단락을 오늘날의 언어로 검토해본다면, 덩링이 『삼팔절 유감(“三八節”有感)』을 저술할 때와 같은 성실함과 진지한 태도를 엿볼 수 있다.

마르크스는 『1884년 경제학 철학원고』에서 부녀해방 사상을 보여줬고, 계급사회에서 부녀자가 해방하기 위해서는 우선적으로 계급 압박의 문제

8) [美] 費梅, 性別意識與主體性—丁玲與Christa Wolf的比較, 丁玲與中國女性文學 [M], 湖南文藝出版社, 1998年版, p.191.

9) 丁玲, 文藝界對王實味應有的態度及反省[J], 鶴元寶, 孫潔 編, 三八節有感—關於丁玲[C], 北京廣播學院出版社, 2000年版, p.11.

를 해결해야 한다고 명확하게 제시한다. 이처럼, 마르크스는 단지 사회주의를 위해서만이 아니라, 또한 부녀자 해방을 하는 데에 있어서도 기초이론을 제공한다. 그 이론은 부녀자가 압박을 받는 근원적 이유 및 부녀자가 압박을 받는 것은 사유재산을 기초로 하는 자본주의의 생산관계에 있음을 폭로한다.

마르크스를 포용한 중국에서 ‘성별압박’의 문제는 마르크스주의를 따라 또한 널리 활용되는 개념적 틀이 되었고, 여성해방 운동은 이 문제에 대해 부단히 폭로하고 항쟁하는 가운데 발전한다. 여기서 주의할 필요가 있는 것은, 이러한 중국 여성해방 운동의 기초는 ‘5.4(五四)’ 시기 남성의 주도로 선도되었다는 점이다. 바로 이 점 때문에, 중국의 여성해방 운동은 필연적으로 서양식의 독립운동이 아니라, 반제국(反帝國) 반봉건(反封建) 반식민주의(反殖民主義)라는 당시 중국이 직면했던 중차대한 시대적 조류와 긴밀히 연결되어 진행될 수밖에 없었다. 이 변혁은 시작하자마자 아이러니하게도 곧 여성 공동체의 염원을 비틀어 버리고 마는, 곡해(曲解)의 결과를 낳는다.

‘5.4(五四)’의 시각은 여성들에게 여성은 약자라는 시각은 제공하지만, 그것이 곧 ‘성별자각’으로부터 기인한 것은 아니다. 주인과 노예, 압박자와 피압박자, 강자와 약자 등등의 개념을 국가와 민족이 처한 빈곤을 분석하는 데에 활용하고, 이와 똑같은 의미에서 남녀의 대립 현상과 여성의 처지를 해석하는 데에도 이용한다. 그러니 ‘성별압박’에 반항하는 것은 자연스럽게 여성주의자의 최우선적인 요구가 되고, 이는 ‘성별혁명’의 핵심 내용이 된다.

딩링의 작품은 전형적으로 이러한 언어 사용의 패러다임을 보여준다: 여성은 우선 약자로 존재하며, 남권(男權) 사회에서 여성은 관상과 지배 그리고 소비의 대상일 뿐이다. 딩링은 자신의 이야기에서 여주인공은 점차 인간으로서의 주체의식을 회복한 후에 ‘압박과 反압박’은 남성과 여성 대립의 가장 기본적인 구조가 되고, 이 때문에, 여성은 오직 ‘성별압박’에 대해 반항적으로 분투할 때만이 비로소 이른바 평등이라는 평등을 얻을

수 있다.

초기 작품들 가운데, 덩링은 집을 떠난 후 사회에 떠도는 여성들을 묘사한다. 그녀는 충동적으로 집을 나간 ‘노라(『인형의 집』의 주인공)’가 남자들이 규정해 놓은 두 가지 ‘압박’의 길: 타락(墮落)과 집으로 돌아가는(回家) 것 외에, 제 3의 길이 있음을 표명한다. 예를 들어, 경제적으로 독립한 소피(莎菲)、멍커(夢珂)、이사먼(伊薩們), 그들은 시대와 사회의 큰 조류 속에서 여전히 고민하고 방황하며 막다른 골목에 이른다; 메이린(美林)、리지아(麗嘉)는 혁명에 몸을 던지지만 혁명과 연애 사이의 모순에 직면하고 만다.

덩링의 시아에서는, 옌안의 부녀(婦女) 또한 피압박자의 모습으로 등장한다. 예를 들어, 『병원에서(在醫院中)』의 루핑(陸萍)은 수차례의 좌절을 겪은 후에, 깊은 고뇌에 빠지는데, 작품에서는 이렇게 묘사한다: “현실 생활은 그녀를 두려워하게 만들었고……그녀는 자신의 일상생활을 돌아보며, 도대체 혁명이란 무슨 소용이 있는가? 혁명은 광대한 인류를 위한 것이라고 하는데, 왜 가장 가까운 동지의 동지애조차도 오히려 결여되게 만드는가.” 혁명을 사랑으로 귀결해서 보는 이러한 견해는 당시 소자본가 계급의 정서라고 종종 비난받는다. 사실상, 루핑(陸萍)은 단 시간에 사람들로부터 ‘낭만파’라는 이단(異端)으로 낙인찍히고, 그녀와의 소원(疏遠)에 따라, 그녀가 제안하는 유의미한 건의들조차도 큰 형세와는 상관없는 자질구레한 지역적인 일들로 치부되고, 실제와는 전혀 부합하지 않는 공상으로 여겨져 거들떠보지도 않게 된다. 이에 그치지 않고 대다수의 여자들처럼 그녀는 냉정하지 못하고, ‘책략이 없다’는 평가를 받게 된다. 이 작품에서, 덩링은 일부 제도에 대한 불만을 표출하고, 단일성별(單一性別)로 구성된 현존하는 제도를 바꿔보고자 하는 강렬한 소망을 피력한다.

문제는 덩링의 이러한 시아와 소망은, 옌안(延安)에는 부합하지 않았다는 점이다.

옌안(延安)은 계급 분석이론을 주류로 삼는 의식형태(意識形態)를 확립했고, 전통적인 마르크스의 논리에 비추보면, ‘여성해방(女性解放)’은

민족해방과 계급해방의 실현에 따라 실현된다고 보았다. 당시 가장 진보한 해방구인 옌안에서는 이미 착취 계급은 소멸하여, 자연스럽게 ‘압박’ 현상은 없었고, 하나의 사회 이상으로서 남녀평등 문제는 새로운 법률의 공포와 실시로 점차 실현되고 있는, 모두가 발전되는 방향으로 광명(光明)으로 나아가고 있었다. 해방구의 사람들은 자연스럽게 이런 상황에 환호를 하고 있었다. 그러나 일찍이 『소피여사 일기(莎菲女士日記)』를 저술한 바 있는 저명한 여성주의자이며, 『해방일보 문예란(解放日報·文藝副刊)』 당(黨)의 대변자라고 할 수 있는 덩링은 그렇게 보지 않았다. 그녀는 오히려 대담하게도 옌안의 여성들은 ‘소리 없는[無聲] 압박’을 받고 있다며, 여성들은 스스로 강해져서 평등을 쟁취해야 한다고 호소한다. 이러한 ‘괴론(怪論)’은 당시 사람들이 납득하기 어려웠을 뿐만 아니라, 더욱이 정권에 대한 침묵하고도 직접적인 도전이었다.

옌안정풍(延安整風)을 학습한 후에, 덩링은 이러한 결론을 내린다: “과거에 내가 선택한 길에는 두 가지 목표가 있었다. 하나는 혁명, 즉 사회주의; 다른 하나는 개인주의이다. 이 개인주의에 혁명의 의상을 입히고, 동시에 자못 저속하지 않은 영웅사상을 또한 입히고, 때에 따라서 감추고 때에 따라서 드러낸다. 하지만, 산베이(陝北)에 온 이후로 이 두 가지 길 가운데 오직 하나의 길, 하나의 목표만을 추구할 수 있었다. 설령 영웅주의라고 할지라도, 개인 영웅주의를 타도하고 난 후의 영웅주의, 즉 공동체(集體)의 영웅주의이다.”¹⁰⁾ 덩링은 지식인이 보편적으로 맞닥뜨리는 의혹을 접하고, 혁명을 선택한다. 이는 단지 문학을 ‘자아표현’에서 ‘군령에 복종(尊將領)’하는 것으로 전환한 것이 아니라, 더 중요한 것은 현대 지식인들이 자아와 혁명의 관계를 어떻게 보느냐의 문제와 연결된다는 점이다. ‘자아실현’과 ‘민족구원’은 필연적으로 무슨 관계인가? 반드시 둘 중의 하나만을 선택해야 하는가? 이 문제는 대부분의 지식인들에게 놓인 곤경(困境)이다.

10) 丁玲, 《陝北風光》校后感[J], 收入《丁玲全集》卷9, 湖南人民出版社, 1984年版, p.237.

미국학자 바이루(白露)는, “딩링은 그녀의 저명한 『삼팔절 유감(“三八節”有感)』에서 서로 연결된 세 가지 문제를 제시한다: 성애(性愛), 자각(覺悟) 그리고 사회(社會). 그녀는 묻는다: 누가 성(性)을 표현하고, 자식의 대(代)를 잇는 문제를 관리할 대권(大權)을 가졌는가? 부녀자들 자신인가 아니면 혼인을 주관하는 기구인가? 성별(性別)이야말로 그녀들이 느끼기에 타인(他人)과 다른 점이라고 느낀다면, 이러한 점이 옌안(延安)에서 인정받을 수 있을까? 마지막으로 사회주의 사회에서 부녀자는 어떤 방식으로 남성과 평등한 권리를 다룰 수 있는가? ……이 여권주의의 성질과 범위를 명료하게 하지 않으면, 우리는 『삼팔절 유감(“三八節”有感)』에서 표출된 마르크스주의와 여권주의간의 논쟁을 충분히 이해할 수 없다.”¹¹⁾

바이루(白露)의 분석은 당시 중국의 여성주의자들의 목소리와 부합한다. 그녀들에 의하면, 딩링은 성장 과정에서 시종 일관되게 여성주의를 어떻게 마르크스주의와 융합할 것인지, 여성의 해방은 어떻게 계급해방과 민족의 해방 및 국가 건설의 발전과 상응하게 할 수 있는지의 고민을 가지고 있었다.

4. 성별 소외: 하나의 초월적 시각

딩링은 마음 깊은 곳, 자신의 곤혹(困惑)을 억제하고 있었을 뿐 성별(性別) 문제에 대한 고민과 탐색은 멈추지 않았다. “낮잠을 잘 때 한 편의 문장을 구상했다……깨고 보니 또한 두려움이 엄습했다…… 『삼팔절 유감(“三八節”有感)』은 내게 수십 년간 고초를 안겨 주었다. 지난날의 상처가 아직 채 아물지도 않았는데, 어찌 또 다시 나를 힘들게 하고, 후대에 화를 끼치겠는가!”¹²⁾

11) 白露, 《三八節有感》和丁玲的女權主義在她文學作品中的表現[J], 鶴元寶, 孫潔 編, 三八節有感—關於丁玲[C], 北京廣播學院出版社, 2000年版, p.95.

1970년대 말, 덩링은 소설 『두완시향(杜晚香)』을 발표한다. 오랜 정치적 외압을 받고, 자기 일신상의 ‘보험’적 고려로부터, 덩링은 모범 노동자 혹은 ‘사회해방절차’의 소재를 선택한다. 『두완시향(杜晚香)』은 사랑이 없는 혼인을 묵묵히 받아들이고, 최후까지 필사적으로 일하여 개인의 ‘원한(怨恨)’을 잊고 부녀자는 독립해야 한다는 의식을 상실한다. 이 때문에, 어떤 평론가는 『두완시향(杜晚香)』은 덩링 말년 부녀자 문제에 대한 그녀의 사고(思考)가 후퇴했음을 상징적으로 보여준다고 지적한다.¹²⁾

하지만, 만일 관점을 바꿔서 작품에 내재하고 있는 심리정감의 요소로 관찰하면, 덩링은 여전히 여성의 관점에서 두완시향(杜晚香)의 마음속 깊이 감춰진, 말하기 힘들지만, 무애(無愛) 즉 사랑하지 않는 고통을 써 내려간다. 예를 들어, 두완시향은 여러 곳을 거쳐 베이다황(北大荒)으로 온다. 그녀는 내심 새로운 가정생활을 꿈꾼다. 그것은 단지 물질적으로 풍요로운 것이 아니라, 그녀가 존경하는 남편과 마음과 영혼으로 교류하는 것이다. 마을의 그 어떤 사람보다도 출중했던 남편, “그는 출국하여 수년간 공부하면서, 여러 지식들을 습득했다.” 이런 그였지만, 정작 집으로 돌아와서는 마을의 다른 어떤 남자들과도 여전히 다르지 않았다. “그저 그녀에게 밥 가져 오라고 하고, 밥 먹고 나면 집을 나가 다른 사람을 찾아 얘기하며 웃고, 그것이 아니면 포커를 하거나 바둑 혹은 장기를 두고, 집에 돌아와서는 아무 말도 하지 않는다.” 장렬한 해방 운동과 사회주의 건설은 왜 가정생활에 어떠한 영향도 주지 못하는가? 두완시향은 이 점을 이해하지 못한다, “사실 남편은 과거에도 그녀에게 이렇게 대했고, 그녀 또한 딱히 부적합하다고 느끼는 것도 없으며, 그렇다고 남편에게 특별한 요구가 있는 것도 아니다. 그러나 현재 그녀는 되레 이런 생각을 한다: ‘그는 멀리서 나를 불러 놓고는 무엇을 하라고 하는가? 그를 대신해서 밥 하고, 방 청소하고, 그렇게 하루하루를 그와 함께 보내는 것인가?’”

두완시향의 곤혹은 또한 덩링 말년의 곤혹이기도 하다. 물론, 이 시기

12) 張永泉, 個性主義的悲劇M, 中國社會科學出版社, 2005年版, p.264.

13) 劉慧英, 走出男權傳統的樊籬, 新知三聯書店, 1996年版, p.113.

에, 덩링은 예전과 같은 광범위한 반향을 불러오진 못했지만, 줄곧 고민 해왔던 곤혹을 다시 제기했다. 새로운 시기의 도래로, 덩링은 문화계의 고위 인사로 다시 복귀했지만, ‘여성해방과 성별평등’의 문제에서, 여전히 ‘여성해방’과 ‘성별압박’에 내재된 논리적 모순에 갇혀 있었고, 그녀는 딱히 기회가 없어 새로운 시각을 확보하지 못했다. “부녀가 진정으로 해방을 하려면, 자유와 평등을 얻으려면, 반드시 전체 사회, 전 제도가 철저하게 바뀌어야 한다, 그러지 않다면 불가능하다.”¹⁴⁾ 이처럼 문제 해결을 위한 덩링의 거시적인 접근방법은, 이제는 시대에 뒤떨어지거나 공허하기까지 하다. 일생을 통해서, 덩링은 자기의 곤혹을 확 트이게 해줄 수 있는 시각을 찾지 못했다. 정말 여성주의는 마르크스주의와 동시에 겸용(兼用)될 수 없는가?

일부 서양 학자들의 입장에서 보면, 마르크스주의가 여성해방을 지도할 수 있다는 것은 의심의 여지가 없다. 문제의 핵심은 어떤 개념 틀을 가지고 ‘여성해방’ 명제를 분석하느냐이다.

당대 서양의 마르크스주의자이며 여성주의자인, Alison M. Jaggar는 전통 마르크스주의의 개념인 ‘계급’, ‘압박’이 아니라, ‘소외’의 개념으로 성별 불평등의 논의를 조망한다. 그녀는 제시한다: “전통적인 마르크스주의자들은 부녀자가 압박을 받는 까닭은 여성들이 공공 노동 장소에서 배척받기 때문이다……사회주의여성주의자들은 마르크스의 소외(異化) 이론을 수정해서 성별 불평등을 인식한다.”¹⁵⁾

‘압박(壓迫)’은 정치학 개념으로, 권력 혹은 세력을 통해서 다른 사람이 복종하도록 강제하는 것이다. 사회에 ‘압박’ 현상이 있다는 것은 자본가와 노동자, 고귀한 자와 비천한 자가 있는 것처럼 대립적인 계급이 존재한다는 것을 뜻한다. 전자는 통치자로서 후자인 피통치자들을 복종하게 만든다. ‘소외(異化)’는 철학적 개념으로, 자기의 소질 혹은 역량이 자기와 대

14) 丁玲, 解答三个問題, 《丁玲文集》第5卷C, 湖南人民出版社, 1984年版, p.330.

15) Alison M. Jaggar, *Feminist Politics and Human Nature*[M]. Totowa, N, J: Rowan and Allanheld, 1983, p.353.

립하거나 오히려 자기를 지배하는 것으로 전환되는 현상을 말한다. ‘소외(異化)’의 주요한 특징은 피차(彼此)가 변증적으로 서로 관계하는 사물 혹은 사람이 피차 분리되거나 완전히 대립되는 경우를 말한다.

전통적인 마르크스에 대하여 Alison M. Jaggar가 계승하고 초월한 지점은, 오직 자본주의 생산관계에 참여하는 사람만이 진정 소외를 당한다는 마르크스의 ‘소외(異化)’사상을 수정했다는 데에 있다. 그녀는 ‘소외(異化)’의 상태는 성별(性別)간의 체험에도 있을 수 있다는 점을 강조한다. Alison M. Jaggar는 부녀자는 단지 자신들의 성(sexuality)에 의해서만이 아니라, 또한 엄마로서 아이 낳고 양육하는 과정(motherhood)에서, 그리고 그들의 지적능력(intellectuality) 방면에서도 ‘소외(異化)’를 경험한다고 지적한다.

우선, 부녀가 경험하는 신체상의 ‘소외(異化)’는 언제, 어디서, 무슨 방법을 사용하든지간에 자신의 몸을 사용함에도 불구하고 부녀 자신의 발언권은 거의 없다고 한다. 그 이유로 여성이 하는 모든 행위는 주로 남성을 기쁘게 해주고, 남자의 눈에 띄기 위함에 있기 때문이라는 점을 지적한다.

Alison M. Jaggar가 언급하는 이러한 상황은 봉건문화 색채가 강한 과거 중국에서 더욱 잘 드러난다. 성애(性愛)에 대해서, 도가(道家)는 음기는 양기를 보충해준다는 양생의 방법으로; 유가(儒家)에서는 대(代)를 잇는 수단으로 파악한다. 만약 이 두 가지 목적이 아니라면 성애(性愛)는 음란한 행위일 뿐인 것이다. 여기서 주목할 점은 양생이든 대를 잇는 수단이든, 남성의 입장에서 보면, 여성은 남성에게 있어서 양생과 대를 잇기 위한 도구일 뿐 그 이상도 이하도 아니라는 점이다. 독일의 저명한 한학자(漢學家) Wolfgang Kubin(沃爾夫根·顧彬)은 『소피여사 일기에 관하여(關於《莎菲女士的日記》)』에서 이렇게 말한다: “전통문학에서 성(性)행위를 하는 부녀는 모두 남성 작가에 의해서 묘사된다. 순결하다고 칭송을 받든지, 음탕하다고 비난을 받는다. 근본적으로 사회를 언급하지 않는다. 그녀는 항상 남성 욕구충족의 대상으로, 혹은 가정의 진열품으로

묘사될 뿐이다.” Kubin(顧彬)의 눈에 비친 『소피여사 일기(莎菲女士的日記)』는 “지금까지 중국문학사에서, 여성에 관하여 중국 부녀가 쓴 최초의 문학작품이며, 자술(自述)이다.”¹⁶⁾

다음으로, Alison M. Jaggard는 부녀가 엄마가 되는 과정이야말로 아주 특수한 ‘소외(異化)’ 경험임을 밝힌다. 왜냐하면 아이를 낳고 양육하는 과정에서 생기는 결과물은 직접적으로 아이들의 몫으로 돌아가며, 이러한 모든 것들이 부녀 자신에 의해서가 아니라, 타인에 의해서 결정되기 때문이다.¹⁷⁾ 현대사회에서 모친(母親)이 자녀에 대해서 느끼는 이러한 모순적인 감정은 노동자가 자신이 만든 상품에 대해 느끼는 마음과 어느 정도 흡사한 면이 있다. 노동자와 마찬가지로, 모친도 일을 할 때 피로감을 느껴도 계속해서 책무를 수행하지만 어느 순간 공허함이 몰려오고 자아 존재의 의의에 대한 회의가 일어난다. 단지 노동자와 다른 점이 있다면 그것은 자신의 ‘상품’에 감정을 투자한다는 점이다.

마지막으로, Alison M. Jaggard는 부녀의 지적능력 또한 ‘소외(異化)’ 받는다고 한다. 일반적인 상황에서, 부녀는 자신에 대해 자신감이 없고, 공공장소에서 자신의 견해를 피력하지 못할 뿐만 아니라, 자기의 관점을 피력할만한 가치가 있다고 여기지도 않는다. 사상과 언어의 규칙이 남성들에 의해서 설정된 상황에서, 부녀는 영원히 자연스럽게 자신의 능력과 재능을 다 보여주지 어렵다. Alison M. Jaggard에 의하면, “사회의식형태(社會意識形態) 가운데, 성별(性別) 기질의 차이에 따른 한계 및 사회에서 여성들 스스로 자신의 의견에 대해 긍정하지 못하고, 공공의 장소에서 의견을 피력하지 못하게 하는 것들이야말로 전형적인 지적능력 방면에서의 ‘소외(異化)’라고 한다…….”¹⁸⁾

“여동지의 결혼은 영원히 사람들의 이목을 끄는 일이며, 동시에 만족

16) 沃爾夫根顧彬, 關於《莎菲女士的日記》[J], 丁玲研究在國外[C], 湖南人民出版社, 1985年版, p198.

17) 李曉光, 馬克思主義與社會性別研究[M], 知識產權出版社, 2007年版, p.141.

18) 孟鑫, 馬克思異化理論是理解女性從屬問題的基礎, 中國社會科學報[J], 2010年1月20日, p.3.

할 수 없는 일이다……단 여성은 결국 결혼해야 한다. (결혼하지 않는 것은 죄악이며, 그녀는 장차 주변에 더욱 많은 구설을 낳는 대상이 되며, 영원히 모욕을 받는다.)” “피부에 주름이 생기기 시작하고, 머리카락은 점차 빠지고, 생활의 피곤과 피폐는 최후의 애교조차도 빼앗아 간다.”¹⁹⁾……재미있는 사실은, 이는 덩링이 약 반세기가 지난 후 삼팔절(三八節) 때의 감흥을 토로한 것이라는 점이다. 오늘날 다시 읽어보아도 사람들의 마음을 여전히 움직인다. 두려운 것은 이 문장에서 “피맺힌 눈물을 흘렸고……오랜 시간동안 내가 겪은 고통과 절절한 희망을 담았다……”²⁰⁾에서, 이러한 ‘고통과 희망’은 그녀의 시대가 지나갔다고 해서 결코 사라지지 않았다는 사실이다.

5. 인식론 재건과 여성해방

Alison M. Jaggar의 ‘성별소외(性別異化)’론은 덩링의 곤혹과 전체 여성해방 및 성별 평등을 추구하는 문제에 있어서 참신하고도 폭넓은 시각을 제공한다. 시각의 변화는 새로운 각도에서의 질문들을 가능하게 한다: ‘성별소외(性別異化)’는 어떻게 발생하는가? ‘성별소외(性別異化)’와 권력기제, 지식구축, 문화순종 등등의 요소들은 서로 어떠한 상호작용을 하는가? ‘소외관(異化觀)’은 우리에게 패러다임을 전환할 수 있는 측면들을 보여줄 수 있을까? Alison M. Jaggar는 『여성주의 정치와 인간의 본질(女性主義政治與人的本質)』의 말미에서 이렇게 말한다: “여성의 입장에서 출발하여 현실에 대한 재편을 진행하고자 하면……, 우리에게서 우리 사회와 나 자신에 대한 더욱 전면적인 변화가 필요하다.”²¹⁾ 그녀의 말은

19) 丁玲, 三八節有感J, 鶴元宝, 孫洁 編, 三八節有感—關於丁玲[C], 北京广播學院出版社, 2000年版, p.5.

20) 丁玲, 文藝界對王實味應有的態度及反省[J], 鶴元宝, 孫洁 編, 三八節有感—關於丁玲[C], 北京广播學院出版社, 2000年版, p.11.

21) Alison M. Jaggar, *Feminist Politics and Human Nature*[M]. Totowa, N, J:

확실히 진일보한 사고를 하는 데 도움이 된다.

여성의 본질은 선천적으로 주어진 것인가, 아니면 후천적으로 형성된 것인가? 이 물음에 대한 다른 대답들은, 자유주의여성주의(Liberal Feminism)와 마르크스주의여성주의(Marxist Feminism)를 구분하는 핵심지표이다. 자유주의여성주의는 주장한다. 인성(人性)은 인간에 앞서 존재하며, 결코 남성 본질 혹은 여성 본질과 같은 것은 존재하지 않는다: 오직 인간의 본질만이 있으며, 이러한 인간의 본질에는 성별의 구분이 없다. 이 때문에 여성은 남성과 같이 천부적인 권리가 있으며, 그들이 요구하는 자유주의의 이상 또한 반드시 여성(女性)한테도 적용해야만 한다. 자유주의와는 달리, 마르크스는 인성(人性)은 남녀 성별상의 차이에서 비롯한다고 보아, 남성 혹은 여성(女性)으로 구분할 필요가 있다. 마르크스주의자는 여성이 받는 압박은 보편적이거나 혹은 생리적인 이유로 결정된 것이라는 점을 부인한다. 반대로, 여성들이 압박을 받는 이유는 계급사회가 만들어낸 것으로, 여성이 압박을 받는 형식은 그 계급사회의 형식이 결정하는 것이며, 따라서 계급사회를 제거해야만 비로소 여성이 받는 압박을 없앨 수 있다.

‘5.4시기(五四時期)’ 부녀 해방을 위한 사상적인 무기로 자유주의의 이론이 적극적인 작용을 했다는 것은 의심의 여지가 없다. 『소피여사 일기(莎菲女士的日記)』가운데, 덩링은 대담하고 솔직하게 여성 내심(內心)의 진실한 욕망을 표현한다: 종종 감정의 욕망을 조정하려 하고, 생명어의(生命意義)의 욕망을 추구하며, 자아 성취와 정립에 대한 욕망 및 욕망의 근원을 묘사하고, 어떤 방법을 써서도 만족감을 얻지 못했을 때의 실망감 등등, 완전히 독립된 하나의 개체로서 여성에게서 나타날 수 있는 진실한 감정 표현들이 ‘소피(莎菲)’에게서는 모두 드러난다.

전통적인 인식론과 관련된 성찰에서, 당대 여성주의자는 추상적인 이성(理性) 능력이 ‘성별 압박’을 야기할 수 있는 문화적 근원임을 강조한

다. 그들에 의하면, 전통적인 자유주의 교육은 여성 발전에 이롭지 않은 ‘남성화’·‘남성중심’의 지식과 지식구조가 존재한다고 보는데, 그 원인은 두 가지: 첫째, 지식의 생산에 대한 관념이 다르다. 전통적인 인식론은 지식은 남성이 창조한 것이고, 오직 남성의 역사와 경험만이 진정한 의미에서 객관적인 지식이며, 여성의 역사와 경험은 주관적이며 정서(情緒)화된 것으로, 이성(理性)이 정감(情感)보다 우월하다; 다른 하나의 원인은 여성주의자는 지식의 생산과 창조는 어느 정도의 처지와 상황들을 수반한다고 여기는 반면, 남성은 지식의 객관성을 강조하는 경향이 강하다.²²⁾

여성주의자에 의하면, 인지(認知)라는 것은 사회적, 역사적 가치에 일정부분 기대고 있는 관념으로, 자신의 이해와 해석의 틀로 세계를 인식하고, 세계에 관한 지식을 형성한다. 여성주의자들은 세계를 인식하고 지식을 형성하는 과정 모두는 사람의 정감, 태도, 흥미, 개성, 가치, 세계관 등의 요소와 밀접하게 관련된다고 말한다. 전통적인 인식론은 이러한 요소들의 작용을 무시하거나 소홀히 다루고, 단편적이며 중성적이고, 사회 역사적인 요소로부터 간섭받지 않은 소위 지식과 진리를 추구한다. 어떤 의미에서 여성이 전통지식을 받아들이는 과정은 사실상 ‘남성화’된 세계를 받아들이는 과정이다.

인식론에서 자유주의적 입장은 일체의 사회역사적 특징을 뽑아낼 수 있는 인식주체가 존재한다는 것을 가정한다. 마르크스주의의 인식론은 이러한 이성적인 ‘인간(人)’의 존재를 부인한다. 왜냐하면 다른 분석 틀로 보면, ‘인간(人)’은 더욱 구체적인 문화적 함의 속에서만 부여될 수 있기 때문이다. 마르크스에 의하면 “인간의 본질은 현실적으로 일체 사회관계의 총화이다.” 성별 의식은 사회와 문화가 창조해낸 것이라는 점을 인정할 때에만, 전통적으로 남성의 종속적 지위 하에 있는 여성을 변화시킬 수 있고, 현대여성들이 ‘성별소외(性別異化)’를 대가로 맞바꾼 이른바 형식적인 의미에서의 남녀평등도 피할 수 있다.

22) 敬沙麗, 女性主義對知識論的批判及其方法論啓示, 山西師大學報, 2006年 第1期, p.115.

Alison M. Jaggar는 인간의 본질에 관한 이론적 구성에서 사회주의여성주의는 전통적인 마르크스주의와 같기 때문에, 인식론의 구성에 있어서도 두 이론을 같은 것으로 간주한다. 두 이론은 지식은 사회에 대한 그리고 그 실천에 관한 건립으로 보며, 지식 개념의 틀은 그 사회의 기원에 의해서 형상화되고 한정된다고 본다. 이 점에서 여성주의와 마르크스주의가 융합할 수 있는 가능성을 볼 수 있다.

전통적인 마르크스주의에 대한 사회주의여성주의의 계승과 발전은 인식론 방면에서 다음과 같이 표현한다: 여성의 특수한 사회적 혹은 계급지위가 그들의 독특한 인식론적 입장을 부여했다는 주장. 자본가 계급이나 노동자 계급의 세계관과 비교해보았을 때, 여성주의 인식론은 여성이 더욱 믿고 의지할 수 있으며 덜 왜곡된 세계관을 형성하게 할 수 있다는 입장이다. Alison M. Jaggar에 따르면, “하나의 여성주의 이론, 심지어 모든 여성주의 이론이 완전해지기 위해 필요한 우선 조건은 반드시 여성의 관점에서 세계를 묘사하는 일이다.”²³⁾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여성의 입장에서 세계를 묘사할 수 있는가? 『사랑과 지식(愛與知識)』의 글에서, Alison M. Jaggar는 서양문화 가운데 “이성(理性)이 정감(情感)보다 우월하다”는 전통에 대해 비판한다. 그녀는 말한다: “법에 부합하지 않는 정감(情感)은 전통이 묘사하는 모습과는 다른 또 하나의 세계를 우리가 관찰할 수 있게 해준다……따라서 비록 여성만이 가지고 있는 것은 아니지만, 특별히 여성이 경험하는 평소의 미묘한 정감(情感)은 사물을 근본적으로 뒤집어볼 수 있게 해주는 동시에 주류에 도전하는 관념이다.”²⁴⁾

Alison M. Jaggar에 의하면, 정감(情感)에는 굉장히 중요한 인지(認

23) Alison M. Jaggar, *Feminist Politics and Human Nature*[M]. Totowa, N, J: Rowan and Allanheld, 1983, p.370.

24) Alison M. Jaggar, ““Love and Knowledge: Emotion in Feminist Epistemology,”” in *Women, Knowledge, and Reality: Explorations in Feminist Philosophy*[M], edited by Ann Garry and Marilyn Peasall (Boston: Unwin Hyman, Inc., 1988), pp.123~155.

知) 가치가 있으며, 그것은 이성(理性)의 감독과 통제하의 세계 그 뒤에 가려진 진실한 존재를 알려줄 수 있다. 사회에서 여성의 역할이란 곧 돌보는 사람 혹은 정감(情感) 있는 간호사와 같다. 남성에 비해 여성들이 감각과 지각 정감(情感)방면의 능력이 강하다는 것을 뜻한다. 따라서 여성은 남성에 비해 ‘인지(認知) 우세(epistemic advantage)’ 방면에서 훨씬 강하다고 할 수 있다.

딩링의 작품을 돌아보면, 확실히 여성의 직각(直覺)에는 어떤 의미에서 ‘인지우세’가 있음을 발견한다. 예를 들어, 어떤 논자는 덩링의 『병원에서(在醫院中)』을 분석하면서, 주인공 루핑(陸萍)과 병원이 갈등을 빚고 충돌하는 것은 루쉰(魯迅)의 『광인일기(狂人日記)』에서 광인과 사회가 충돌하는 것과 같은 성격임을 지적한다. 그들은 모두 사회 환경의 병적인 상태가 오히려 개인에게 병이 있는 것(有病)으로 간주된다는 것을 가리키려고 시도한다. 루핑(陸萍)이 처한 사회 환경의 성격은 결코 전근대의 ‘봉건습성(封建習氣)’이 아니라, “현대방식”으로 조직된 ‘병적인 상태’이다. 루핑(陸萍)의 노력은 곧 일종의 ‘현대성’을 완전히 하고자 하는 노력이다.²⁵⁾

딩링이 『삼팔절 유감(“三八節”有感)』을 쓴 후에 당한 경험을 회고해보면, 당시 여성작가들은 집단적으로 전향하여 여성 자신의 목소리를 내는 기회를 상실하고, 따라서 여성의 입장을 통해서 세계를 묘사하려는 시도는 불가능해진다. 1979년, 덩링은 기자가 『삼팔절 유감(“三八節”有感)』에 관하여 질문을 할 때, 웃으며 답한다: “사실 내가 말하는 것은 단지 부녀(婦女)문제였다……지금의 문제는 그 때보다 더 엄중해졌다.”²⁶⁾

딩링이 작고하고 20년이 지난 오늘, 다시 그녀의 작품을 읽는다면, 우리는 하나의 초월적 시각에서 성별 압박 현상을 바라보고, 또 여성주의와 마르크스주의의 관계를 새롭게 조망해보기를 희망한다. Alison M.

25) 黃子平, 病的隱喻與文學的產生—丁玲的〈在醫院中〉及其他[J], 載唐小兵編:《再解讀—大眾文藝與意識形態》[C], 香港:牛津大學出版社, 1993年, p.73.

26) 冬曉, 走訪丁玲, 香港《開卷》[J], 1979年 第5期, p.26.

Jaggar의 ‘성별소외(性別異化)’론은 성별 압박을 극복하는 것은 단지 사회정치의 문제가 아니라, 어떻게 인식론을 새롭게 하여 여성을 전면적으로 이해할 수 있는 문화를 만들 수 있는가 하는 문제로 연결된다. 우리는 Alison M. Jaggar의 논증을 통해서, 마르크스의 역사유물주의는 여성해방을 지도하는 데 여전히 빠질 수 없는 사상임을 또한 확인한다.

참고문헌

- [1]李玲: 青春女性的獨特情怀, 文學評論[J], 1998年 第1期.
- [2]丁玲, 寫給女青年作者[J], 丁玲論創作[C], 上海文藝出版社, 1985年版.
- [3]丁玲, 三八節有感[J], 鶴元寶、孫潔編, 三八節有感—關於丁玲[C], 北京廣播學院出版社, 2000年版.
- [4]張永泉, 個性主義的悲劇[M], 中國社會科學出版社, 2005年版.
- [5]朱鴻召, 丁玲到延安后的思想波瀾, 炎黃春秋[J], 1999年 7期.
- [6]袁良駿, 丁玲: 不解的恩怨和謎團, 粵海風[J], 2001年 3期.
- [7][美]費梅, 性別意識與主體性—丁玲與Christa Wolf的比較, 丁玲與中國女性文[M], 湖南文藝出版社, 1998年版.
- [8]丁玲, 文藝界對王實味應有的態度及反省[J], 鶴元寶、孫潔編, 三八節有感—關於丁玲[C], 北京廣播學院出版社, 2000年版.
- [9]丁玲, 《陝北風光》校后感[J], 收入《丁玲全集》卷9, 湖南人民出版社, 1984年版.
- [10]白露, 《三八節有感》和丁玲的女權主義在她文學作品中的表現[J], 鶴元寶、孫潔編, 三八節有感—關於丁玲[C], 北京廣播學院出版社, 2000年版.
- [11]壽靜心, 女性文學的革命, 中國社會科學出版社, 2007年版.
- [12]孟悅、戴錦華, 浮出歷史地表—現代婦女文學研究, 中國人民大學出版社, 2004年版.

- [13]劉慧英, 走出男權傳統的樊籬, 新知三聯書店, 1996年版.
- [14]丁玲, 解答三個問題[J], 《丁玲文集》第5卷[C], 湖南人民出版社, 1984年版.
- [15]Alison M. Jaggar, *Feminist Politics and Human Nature*[M]. Totowa, N, J: Rowan and Allanheld, 1983.
- [16]沃爾夫根顧彬, 關於《莎菲女士的日記》[J], 丁玲研究在國外[C], 湖南人民出版社, 1985年版.
- [17]李曉光, 馬克思主義與社會性別研究[M], 知識產權出版社, 2007年版.
- [18]孟鑫, 馬克思異化理論是理解女性從屬問題的基礎, 中國社會科學報[J], 2010年1月20日.
- [19]李有亮, 給男人命名[M], 社會科學文獻出版社, 2005年版.
- [20]敬沙麗, 女性主義對知識論的批判及其方法論啟示, 山西師大學報, 2006年第1期.
- [21]西蒙波伏娃著, 桑竹影等譯: 第二性—女人[M], 湖南文藝出版社, 1986年版.
- [22]Alison M. Jaggar, ““Love and Knowledge: Emotion in Feminist Epistemology,”” in *Women, Knowledge, and Reality: Explorations in Feminist Philosophy*[M], edited by Ann Garry and Marilyn Peasall (Boston: Unwin Hyman, Inc., 1988).
- [23]黃子平, 病的隱喻與文學的產生—丁玲的〈在醫院中〉及其他[J], 載唐小兵編: 《再解讀—大眾文藝與意識形態》[C], 香港: 牛津大學出版社, 1993年.
- [24]冬曉, 走訪丁玲, 香港《開卷》[J], 1979年第5期.

【Abstract】

Claiming, Distorting and Reinterpreting of Sexual Equality

-Seeing the process from conflicting to merging between Feminism and Marxism

by analyzing Dingling's works-

Lv, Xu-long

Abstract: In the article *The words for Ladies' Day*, which published in 1942, Dingling expressed her deeply puzzling: why there are still lots of phenomenon of sexual oppression even when the proletariat becomes real owner of society? The cause of puzzling among Dingling and her time's authors, we find, could be referred to the limitation of traditional Marxism, which was accepted as the theory for women liberation. Alison M. Jaggar, a contemporary feminist, creates a new viewpoint by developing Marxism. She uses the concept 'alienation' instead of 'classes' and 'oppression' to explain and analyse the problems of sexual oppression. In this article, we reinterpret the meaning of sexual equality in Dingling's work by Jaggar's viewpoint. And we would also demonstrate the positive influence that the Socialist Feminism had made on Marxism.

Key words : Sexual Equality, Alienation of Sex, Feminism, The works of Dingling